

##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sup>1)</sup>

김 혜 숙

아주대학교 심리학 전공

이 논문에서는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과 통일에 대하여 가지는 의식·신념, 감정 및 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안다고 느끼는 정도는 10년 전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에 대해 아는 정도보다도 낮았다.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즉, 대학생과 일반인)이 북한 사람의 특징으로 지각하는 바는 '협동 단결력이 있다' '순박하다' 등 일면 긍정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은 여전히 북한 사람들의 부정적 특성을 지각하고 있었다.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 평가는 10년 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미국사람보다 북한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 호감도 평정을 하였는데 반해 일반인들은 북한사람에 대해서보다 미국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 호감도 평가를 나타내었다. 북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서는 동정정서가 가장 뚜렷하며 긍정적 정서나 불안-불편 정서는 그다지 보이지 않았으며 불쾌-혐오 정서는 거의 없었다. 북한사람에 대해 아는 정도, 호감도, 긍정적 감정 및 사회적 관계 의사에 있어 일관되게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둘 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책 평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한 사람들의 북한 사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 변화를 위한 심리학적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심리학적 연구들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통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시급한 화두 중의 하나이다. 올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라든지 이산가족 교환방문, 그리고 문화교류 등 통일

을 향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고 그만큼 통일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슈이다. 여러 관련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임박해 있는 통일의 전망에

1)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대비해 통일이 되었을 때 대두될 수 있는 정치 제도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된 사회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과 통합에의 방해 요인은 사람들의 분단의식이다 (Spiegel지, 1993년 1월 18일자, 전대국, 1999에서 재인용). 즉, 각각 다른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즉, 문화가 달라져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융합이 어렵게 되고 그만큼 진정한 통합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정진경, 1999).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 되었을 때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체계 속에서 살아오던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속에 얼마나 가깝게 수용할 것인가-서로 결혼하고 가까운 친구로 사귀며, 기꺼이 고용하며 세를 주고자 할 것인가, 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며, 동질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체제 통합의 문제점과 달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질감, 갈등, 편견 및 배타성의 문제이다. 특히 통일이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의 지위에 있는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개방성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가 남북한인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통일의 부정적 측면중의 하나는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서독인들이 동독인에 대해 보이는 “이등시민” 취급이나 경멸의 의미로 “Ossi”라고 부르는 예 등에서 나타나는 편견적 태도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정치적 제도의 문제와 달리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므로, 그만큼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느끼게 하는 ‘심리적 폭력’(김혜숙, 1993)-즉, 부당한 비하, 따돌림, 심리적·사회적 차별, 그리고 왜곡되고 편파된 시각-의 문제인 것이다. 실상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왕따’의 문제는 남한 사회의 심각한 사회 병폐중의 하나인 지역감정의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의 문제는 물론 정치적·경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당한 차별, 따돌림과 선입관 등의 심리적인 문제도 보다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사회가 그때까지도 지역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북한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또 다른 지역감정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학자들(황태연, 임혁백; 동아일보 2000년 6월 3일)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영호남 지역통합이 통일의 기반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보다 극심한 지역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우려가 통일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계의 지적은 지역감정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해결의 추구를 강조한 것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감정의 문제는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사람들의 차별의식과 고정관념에서 그 심각한 일상생활에서의 폐해가 나타나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 문제 해결과 아울러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통일에 대한 준비는 남북한 사람들의 의식적·심리적 통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현재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진다. 즉, 남한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편견적 태도를 가지며, 얼마나 친숙하게 알고 있으며, 얼마나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가깝게 교류할 용의가 있는지 등 북한 사람들에 대한 신념, 지식, 감정, 거리감 및 태도를 정확히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은, 심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 사람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현재의 지각과 의식 혹은 편견의 실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럼으로써 통일에 대비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과 통일에 대해 보다 수용적·호의적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교육적 노력이 필요해 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변화 혹은 가능한 정책적 개입에 의해 이러한 의식과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떠한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된 심리과정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은 태도, 사회인지, 집단갈등 분야 등 사회심리학의 여러 연구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연구 분야로서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이론과 연구들만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관련 연구들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인지적 요소(즉, 고정관념), 감정적 요소 및 행동(즉, 차별)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중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은 고정관념이 대상에 대한 확신적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을 유지시키고 확대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Fiske, 1993). 즉, 사람들은 어떤 대상의 행동에 대해 정보처리를 할 때 그가 속한 집단범주(예를 들어, 성, 인종, 지역 등)에 의거하여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 고정관념에 맞도록 편파적으로 해석 귀인하며, 따라서 많은 경우 고정관념 일치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 최근 연구들(Bargh, 1982; Devine, 1989; Greenwald, McGhee, & Schwarz, 1998)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우리가 의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자동처리 과정을 일으켜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범주에 근거한 고정관념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재생산되도록 하고 또한 편파된 태도와 행동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다른 최근의 연구들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처리의 동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의거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 방식으로 정보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어,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한 방안-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 고양을 제시하고 있다(Fiske, 1998).

한편, 사회정체이론(Tajfel & Turner, 1979), 자기범주화이론(Turner & Oakes, 1989) 그리고 사회인지 영역의 연구들은 편견의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범주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우리”와 “그들”로의 범주화가 편견의 근원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람들은 대상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내집단

을 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견의 문제는 대상을 내집단으로 분류하는가, 또 얼마나 자신의 내집단에 대해 동일시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이에 따라 편견 감소의 방안도 대상을 내집단으로 재범주화함으로써, 혹은 대상과 자기자신을 더 이상 집단인으로서 분류하지 않고 개인화 혹은 탈범주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편견의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인지주의적 관점의 연구들의 편중은 그러나 최근 들어 도전 받고 있다(Jussim, Nelson, Manis & Soffin, 1995; Pettigrew & Meertens, 1995). 이러한 도전은 주로 편견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인지나 신념보다도 감정에 근거한다는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렸을 때 학습한 어떤 집단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편견의 핵심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 학습된 대상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성인이 되어 사회적 규범(즉, 반편견)을 획득해 감에 따라 자신의 편견적 태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고자 노력하여도 자동적으로 또는 역하의식적으로 사람들의 판단,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게 하여 대상과의 접촉을 불편해 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백인은 흑인에 대해 인종평등주의적 가치에 의한 긍정적 감정과 개인주의적 가치(예를 들어, 개인이 열심히 일한만큼만 대가를 받아야 한다 등)에 근거한 부정적 감정의 양가 감정을 흔히 갖는다. 따라서, 편견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이라든지, 고전적 조건형성이나 단순 접촉의 방법 등이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즉, 신념, 감정 및 행동의사)와 의식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의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실상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의식을 조사한 연구

들을 위주로 개관하되, 의식과 태도의 각 영역-지식, 신념, 감정, 친숙도 및 행동의사 등-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각 영역에 대해 가능한대로 1) 조사 년도에 따른 변화 2)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의 비교 3)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4) 조사 대상의 하위 집단에 따른 차이 등을 중심으로 검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필요한 연구들을 제안하고, 또한 이러한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토대로 남북한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간단히 제안하겠다.

1. 북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

우선, 남한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김혜숙·오승섭(1999, 연구2)은 남녀 대학생(N= 190; 남자 127명, 여자 63명)과 일반인들(N=162;남자 74명, 여자 8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알아 보았다 (1999년 조사). 그

들은 또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한사람, 미국사람 그리고 일본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지각 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최근의 자료를 1988년 조사된 차재호(1992)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조사 년도에 따른 변화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 자료는 표 1의 ( )에 표시하였다. 차재호(1992; 1988년 조사)의 연구는 전국적 표본(N=1967;고등학생 960명, 대학생 407명, 일반인 600명)에서 얻은 자료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사용된 척도는 9점 척도(1=전혀 알지 못한다, 9=매우 잘 안다)였다. 이 두 연구의 피조사자가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 비교의 의미 해석이 무리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두 연구만이 북한인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포괄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 두 연구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1에 각 나라사람에 대해 아는 정도의 평가 평

표 1. 각 나라사람에 대해 잘 아는 정도 평가

	대학생			일반인			전체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한사람 <sup>1</sup>	6.87	6.10	6.48 (7.16)	7.10	6.29	6.69 (7.48)	6.58
북한사람 <sup>2</sup>	3.84	3.40	3.62 (3.89)	3.99	3.46	3.73 (4.25)	3.67
미국사람 <sup>3</sup>	4.85	4.71	4.78 (4.96)	4.74	3.89	4.32 (4.51)	4.55
일본사람 <sup>4</sup>	4.95	4.71	4.83 (5.08)	4.88	4.18	4.53 (5.26)	4.68

출처: 김혜숙·오승섭 (1999); ( )안의 숫자는 차재호(1992)

주. 아는 정도 평정은 9점척도(1= 전혀 알지 못한다 9점 = 매우 잘 안다)를 사용하였음

- 1. 성별의 주효과  $F(1, 344)=25.85, p<.01$
- 2. 성별의 주효과  $F(1, 344)=6.67, p<.05$
- 3. 성별의 주효과  $F(1, 344)=10.47, p<.01$ , 신분의 주효과  $F(1, 344)=9.42, p<.01$   
성별 × 신분 상호작용  $F(1, 344)=5.57, p<.05$ .
- 4. 성별의 주효과  $F(1, 344)=7.18, p<.01$

균이 나타나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에 대해서보다 북한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더 적다. 또한 북한사람에 대해 아는 정도는 9점 척도상에서 평균 3.67밖에 되지 않아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차재호(1992)의 연구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10년 전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북한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람들이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북한사람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느끼고 특히 여성들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 남한사람들의 북한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정도가 수준이하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경로는 TV를 통해서(72.4%), 신문·잡지를 통해서(64.6%), 책·영화(49.2%), 학교(19.9%), 그리고 친구·선배·이웃(6.1%)을 통해서였다. 이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TV나 신문잡지를 통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학교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2. 북한사람의 특성 지각

다음,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의 특성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살펴 보겠다. 즉, 북한사람에 대해 가지는 남한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것이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특히 부정적 고정관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상의 행동을 왜곡 해석하도록 하며 많은 경우 대상의 행동에 대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만 편파되게 기억하도록 하며, 또한 편파된 판단과 태도와 행동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의 특성이란 믿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차재호(1992)의 연구와 김혜숙·오승섭(1999,

연구1)의 연구에서 비슷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들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시대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겠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특성형용사 목록(차재호의 연구에서는 86개의 형용사 목록을 사용했고, 김혜숙·오승섭은 이에 14개의 특성형용사를 더해 총 100개의 형용사를 사용함)을 주고 이중 대상집단인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8개 골라보라고 하였다. 김혜숙·오승섭의 연구(연구1)에서는 대학생들(182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차재호는 일반인과 대학생 응답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우선 현재 대학생들이 북한사람과 그의 남한사람, 일본사람 및 미국사람에 대하여 각각 그 특징으로 지각하는 특성들과 그 응답비율(즉, 각 항목을 특성으로 지각한 응답자의 비율)이 표2에 나타나 있다. 또한 표 3에는 차재호의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보면, 현재 남한 대학생들은 북한 사람을 폐쇄적이고 순박하고 주체성이 강하며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1988년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응답한 바와 비교하면, 우선 오늘의 대학생들은 10년 전의 대학생들에 비해 '순박하다'는 특성을 북한 사람의 특성으로 더 많이 꼽고 있어 일면 긍정적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전의 대학생들은 북한 사람의 특징으로 '부지런하다',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등의 긍정적 특성들을 지각하고 있어 오늘날의 대학생들보다 일면 더 긍정적이다. 차재호(1992)의 조사에서는 북한인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공통적 고정관념의 내용은 '폐쇄적이다', '독재적이다' 및 '딱딱하다'이었는데, 그 외에는 대학생들과 일반인의 고정관념에 괴리가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순박하다', '주체성이 강하다', '부지런하다', '단결력이 강하다' 등을 꼽았는데 반해 일반인들은 '잔인하다', '침략적이다', '난폭하다' 등도 북한인의 특성이라고 평가하여, 대학생들이 일반인보다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혜숙·오승섭(1999)의 연구2)에서는 24개의 특성형용사 목록을 주고 각 특성이 어느 정도로 북한 사

표 2. 대학생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100개의 형용사 목록에서 고른 결과와 그 응답 비율(%)

남한사람	북한사람	미국사람	일본사람
교육열이 높다 66.5	폐쇄적이다 56.6	개인주의적이다 67.6	교활하다 39.6
혈연애·지연애가 있다 50.5	순박하다 44.5	개성을 존중한다 42.9	질서의식이 강하다 37.9
권위주의적이다 50.5	주체성이 강하다 32.4	합리적이다 41.2	검소하다 33.5
적당주의이다 46.2	배타적이다 28.0	약소국을 깔본다 38.5	부지런하다 31.9
정이 많다 39.6	공격적이다 26.9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 35.7	침략적이다 31.9
허세가 강하다 36.8	미개하다 25.8	실리적이다 34.1	모방적이다 29.7
질서의식이 약하다 31.9	독재적이다 23.1	질서의식이 강하다 34.1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 28.6
동족애가 깊다 26.9	권위주의적이다 22.5	개방적이다 29.1	천절하다 26.4

출처: 김혜숙·오승섭(1999)

주 1. 숫자는 응답자들이 100개의 형용사중 8개를 각 나라사람들의 특징으로 고른 결과, 전체응답자 중 각 특성을 고른 응답자의 비율임.

표 3. 대학생과 일반인이 북한 사람들의 특징을 86개 형용사 목록에서 고른 결과와 그 응답비율(%)

대학생	일반인
폐쇄적이다 57.6	폐쇄적이다 52.8
주체성이 강하다 44.0	독재적이다 43.2
부지런하다 29.6	잔인하다 42.4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29.6	침략적이다 36.8
배타적이다 29.6	난폭하다 35.2
순박하다 29.6	의심이 많다 29.6
독재적이다 28.8	딱딱하다 24.8
딱딱하다 27.2	냉정하다 24.8

출처: 차재호(1988)

주 1. 숫자는 응답자들이 86개의 형용사중 8개를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으로 고른 결과, 전체응답자 중 각 특성을 고른 응답자의 비율임.

람의 특징이 된다고 보는지를 9점 척도(1: 전혀, 9: 매우)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4에 이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응답 평균이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특성형용사 목록중 특성을 고르게 한 연구 1(표 2)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북한사람의 특성으로 폐쇄적이고, 협동단결력이 높으며, 순박하고, 배타적이며 질서의식이 강하다고 평정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인들의 북한사람에 대한 지각은 차재호(199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보다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북한 사람들이 협동단결력이 높고 폐쇄적이며 주체성이 강하고 배타적·공격적·침략적이고 질서의식이 강하며 순박하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한편 일반인들도 북한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성으로 '협동단결력이 높다'로 꼽아 10년 전보다 일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사람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바는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순박하다', 및 '주체성이 강하다' 등이다. 또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북한사람의 특성지각에는 괴리가 있어, 대학생들에 비해 일반인들은 북한사람이 공격적·침략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현재 우리 대학생들은 북한사람을 보다 '순박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도 북한사람이 '협동단결력이 높다'라고 보아 10년전보다 일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제까지 개관한 연구들은 남한사람의 하위집단(즉, 대학생과 일반인, 남자와 여자)에 따라 북한사람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전우영(1999)과 전우영·조은경(2000)은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은 북한사람의 하위 집단에 따라 또한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전우영(1999)은 우리나라 대학생들(N=171)이 북한, 남한 그리고 남북한 사람들의 여러 하위 집단(즉, 국민, 지배층, 피지배층, 여성, 남성, 소년, 소녀 등)의 특징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고정관념적 남성성(즉, 지배성, 주도성)과 여성성(즉, 공동체 지향성, 협동성 혹은 관계지향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북한사람과 북한을 구분하고 또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여 지각하여, 북한과 북한지배층을 남성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 북한동포와 북한 여성, 북한피지배층 및 북한소녀에 대해서는 여성적 특징

표 4.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24개의 형용사목록을 사용하여 평가한 북한사람의 특성과 그 평가 평균

대 학 생		일 반 인	
폐쇄적이다	6.72	협동단결력	7.05
협동단결력	6.54	폐쇄적이다	6.86
순박하다	6.20	주체성이 강함	6.70
배타적이다	6.03	배타적이다	6.43
질서의식 강함	6.00	공격적이다	6.38
개인주의적이다	3.96	침략적이다	6.36
개성을 존중함	3.09	질서의식 강함	6.20
		순박하다	6.17
		검소하다	6.12
		권위주의적이다	6.03
		개인주의적이다	3.66
		개성을 존중함	2.89

출처 : 김혜숙·오승섭(1999)

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표 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남한대학생들은 북한나라와 북한지배층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라고 지각하였으나, 북한동포, 북한 여성, 북한피지배층과

표 5. 남·북한 및 남·북한내 하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

남한		남한 지배층		남한 소년		남한 남성	
경쟁적인	3.53	지배적인	4.28	경쟁적인	3.63	지배적인	3.81
이기적인	3.42	이기적인	4.23	이기적인	3.42	경쟁적인	3.81
지배적인	3.40	거만한	4.08	공격적인	3.32	야심적인	3.62
타인의 감정에 민감	3.30	경쟁적인	3.98	야심적인	3.28	이기적인	3.56
거만한	3.21	야심적인	3.96	자신있는	3.25	거만한	3.51
우호적인	3.02	공격적인	3.76	타인의 감정에 민감	3.12	공격적인	3.42
남한 국민		남한 피지배층		남한 소녀		남한 여성	
경쟁적인	3.65	가정적인	3.58	타인의 감정에 민감	3.76	가정적인	4.12
이기적인	3.52	타인의 감정에 민감	3.33	가정적인	3.39	타인의 감정에 민감	3.72
가정적인	3.44	이기적인	3.16	이기적인	3.37	우호적인	3.34
타인의 감정에 민감	3.42	우호적인	3.09	경쟁적인	3.35	이기적인	3.33
거만한	3.18	공격적인	3.06	호감이 가는	3.34	희생적인	3.31
야심적인	3.16	경쟁적인	3.02	친절한	3.32	이해심이 있는	3.28
북한		북한 지배층		북한 소년		북한 남성	
공격적인	4.30	지배적인	4.40	공격적인	3.52	공격적인	3.25
지배적인	4.13	공격적인	4.19	야심적인	3.21	지배적인	3.11
야심적인	4.01	거만한	3.98	정직한	3.19	독립적인	2.95
이기적인	3.78	이기적인	3.90	경쟁적인	3.19	이기적인	2.94
독립적인	3.75	야심적인	3.89	자신있는	3.00	정직한	2.92
경쟁적인	3.48	경쟁적인	3.65	독립적인	2.98	경쟁적인	2.92
북한 동포		북한 피지배층		북한 소녀		북한 여성	
가정적인	3.27	가정적인	3.35	정직한	3.20	가정적인	3.57
정직한	3.25	정직한	3.10	가정적인	3.13	희생적인	3.25
희생적인	3.04	희생적인	3.09	호감이 가는	3.03	정직한	3.08
호감이 가는	2.97	친절한	2.97	타인의 감정에 민감	3.02	이해심이 있는	3.02
친절한	2.96	호감이 가는	2.95	희생적인	3.01	친절한	2.99
우호적인	2.89	우호적인	2.95	친절한	2.94	호감이 가는	2.94

출처: 전우영(1999)

주. 점수는 5점 척도상(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평가 점수임.



표 6. 각 나라 사람에 대한 호감도 평가

	대학생			일반인			전체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한사람 <sup>1</sup>	6.44	5.56	6.00	6.32	6.28	6.30	6.15
북한사람 <sup>2</sup>	5.42	4.90	5.16	5.01	4.93	4.97	5.06
미국사람 <sup>3</sup>	4.98	4.73	4.86	5.51	5.24	5.38	5.12
일본사람 <sup>4</sup>	4.62	4.24	4.43	4.53	4.18	4.35	4.39

출처: 김혜숙·오승섭(1999)

주. 호감도 평정은 9점 척도(1=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9=매우 좋아한다)를 사용하였음

<sup>1</sup>. 성별×신분 상호작용효과  $F(1, 345)=6.32, p<.05$

<sup>2</sup>. 성별의 주효과 경향성  $F(1, 345)=3.68, p<.06$

<sup>3</sup>. 신분의 주효과  $F(1, 348)=12.27, p<.01$

<sup>4</sup>. 성별의 주효과  $F(1, 345)=4.31, p<.05$

북한 소녀에 대해서는 가정적이고 정직하며 희생적이고 호감이 간다고 지각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사람에 대한 남한대학생들의 고정관념이 일률적이지 않고 하위집단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북한나라에 대한 지각과도 차이가 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이 남한 사람들이 나라로서의 북한과 북한 사람을 구분하여 지각한다는 사실은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해 떠오르는 바를 자유롭게 적도록 한 김혜숙·오승섭(1999, 연구1)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떠오르는 바를 적도록 하였을 때의 반응은 '기아', '폐쇄', '가난', '공산당', '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사람에 대해 적어 보게 했을 경우의 반응은 '안타깝다', '빈곤', '동포', '주체사상', '우매함', '초채함', '폐쇄적' 등이어서, '북한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북한나라'에 대한 반응보다 더 감정이입적임을 알 수 있다.

### 3.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감정

편견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대상이 속한 집단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에 또한 근거된다(김혜숙, 1999; Jussim, Nelson, Manis & Soffin, 1995). 미국의 인종차

별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인이 현재 소수 인종에 대해 가지는 편견은 이전의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에서 보다 은밀한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이의 근원이 되는 감정적 측면도 대상 집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나 호전성이 아니라 상대와의 드문 접촉이나 비친숙성으로 인한 불편감, 혐오, 불안 혹은 긍정적 감정의 부족이 그 주를 이룬다고 한다. 남한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의 유형도 같은 동포이므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오랜 기간동안 교류가 없었고 또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거부감등으로 인하여 두려움 등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북한의 경제적 열악함 등으로 인한 멸시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남한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의 정도와 감정의 색깔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러한 감정이 편견적 태도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혜숙·오승섭(1999)은 현재 남한의 대학생과 일반인이 북한사람과 남한사람,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에 대해 어느 정도로 좋아한다고 느끼는 지를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에서 보면, 우선 전체 호감도 평균에 있어서 사람들은 남한사람을 제일 좋아하며, 그 다음

표 7. 각 나라 사람에 대한 호감도 평가

	대학생	일반인
남한사람	9.39	9.60
북한사람	6.85	4.27
미국사람	2.78	5.72
일본사람	1.97	2.50

출처: 차재호(1992)

주. 숫자는 11점 척도(1=전혀 좋아하지 않음, 11=매우 좋아함)상의 점수임.

이 북한사람과 미국사람이 비슷한 정도로 '그저 그렇다'로 평가되었으며, 일본사람은 약간 좋아하지 않는 정도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북한사람과 미국사람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대학생과 일반인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미국사람보다 북한사람을 약간 더 좋아한다고 평가하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반인들은 미국사람을 북한사람보다 더 좋아하였다. 이와같은 대학생과 일반인의 평가 차이는 차재호(1992)의 연구에서 호감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던 경우의 결과와도 비슷하다(표 7). 즉,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차재호(1992)의 연구에서도 일반인은 한국인, 미국인, 북한인, 그리고 일본인의 순서로 선호도를 평정하였는 데 반해, 대학생은 한국인, 북한인, 미국인 그리고 일본인의 순서로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10년전 조사와 최근의 조사 결과의 차이는 일반인에 있어 10년 전에 비해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 평가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도 높아졌다. 반면, 대학생에 있어서는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10년 전과 대동소이한데,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국내 정치(예를 들어, 햇볕정책 등)와 국제정세의 변화(즉, 사회주의 몰락, 세계화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호감도 평가에 대해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결과는 북한 사람에 대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덜 좋아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김혜숙·오승섭(1999) 연구의 여자대학생들의 평가는 일반인의 평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 평가에 있어 남자대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호의적임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남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보다 호의적 평가는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원인을 추론하기 힘들다,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대학의 문화와 규범에 더욱 동일시하고 더 영향을 받으며 더 많이 받아들이고, 또한 현재의 우리 대학의 북한사람에 대한 정서와 규범은 보다 동정적,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한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는 사실은 앞에서 보고한, 북한사람에 대해 아는 정도에 있어서의 성차이의 유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우영·조은경(2000)은 북한, 북한사람,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를 7개의 공감문항들(예: 북한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는 자주 마음이 움적인다, 북한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그다지 측은해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남한 대학생(N=189)들은 북한(M=2.65)과 북한남자(M=2.56)에 대해서는 중간이하(5점 척도의 중간점, 즉 3점)의 감정이입을 나타냈지만, 북한사람(M=3.19)과 북한여성(M=3.12)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감정이입을 나타내어, 역시 북한의 하위집단에 따라, 또 나라와 사람에 대해 다른 감정이입의 정도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주요 감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김혜숙(준비중)은 남녀 대학생 195명에게 감정표현 형용사 13개(즉, 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존경할 만하다, 좋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두렵다, 불쌍하다, 슬프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를 주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인 분석한 결과, 4요인으로 묶여졌는데, 이 요인들과 그에 속한 감정항목들이 표 8에 나타나 있다. 이 요인들은 긍정적 정서, 불안·불편 정서, 동정적 정서, 그리고 불쾌 정서였다. 표 9에 각 요인에 대한 평정 평균이 응답자 성별로 나타나 있다. 이에

표 8.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 요인

긍정적 정서	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존경할만하다, 좋다
불안·불편 정서	불안하다, 화가난다, 불편하다, 두렵다
동정적 정서	불쌍하다, 슬프다
불쾌 정서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출처: 김혜숙(준비중)

표 9.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느끼는 각 감정 요인에 대한 성별 평균

	남자 응답자	여자 응답자	평 균
긍정적 정서	4.13	3.67	3.90
불안·불편 정서	3.99	4.33	4.16
동정적 정서	5.88	6.24	6.06
불쾌 정서	2.72	2.88	2.80

출처: 김혜숙(준비중)

주 1. 숫자는 9점 척도(1=전혀, 9=매우)상의 점수임.

서 보면 우선,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정서는 '동정'이 가장 우세했다. 그리고 불쾌 정서나 혐오정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긍정적 정서와 불안감, 불편감 및 두려움도 그다지 느끼고 있지 않다. 각 요인들에 속하는 감정행용사들에 대한 평정 평균에 대해 성 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긍정적 정서에 있어서만 성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북한 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북한사람에 대해 그다지 뚜렷하게 긍정적 감정을 가지지는 않으나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으며,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감정은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감 평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북한사람에 대해 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 4. 북한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중요한 여러 측면에서 남

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얼마나 가까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다. 사회적 거리감 측정은 일상생활의 구체적 행동의사(예: 결혼이라도 하겠다, 데이트상대로 삼지 않겠다)를 묻는다는 점에서 행동과 직접 연관된 태도 측정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혜숙·오승섭(1999)은 다섯 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만들어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인, 남한인, 미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얼마나 가까이 지낼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들은 '결혼이라도 하겠다', '혼인관계로 나와 인척이 되는 것을 환영하겠다', '이웃집 아이나 동생들과 같이 놀게 하겠다', '데이트상대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한 집에 세를 주지는 않겠다'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 평균(9점 척도; 숫자가 클수록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냄)을 사회적 거리감 점수로 삼았다. 표 10에 각 나라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가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

표 10. 각 나라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대학생			일반인			전체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한사람	8.05 (8.01)	7.73 (7.33)	7.89 (7.67)	7.93 (8.02)	7.76 (7.69)	7.84 (7.86)	7.86
북한사람 <sup>1</sup>	6.10 (5.42)	5.03 (4.01)	5.56 (4.72)	5.89 (5.24)	5.32 (4.49)	5.60 (4.87)	5.58
미국사람	5.46 (4.08)	6.01 (4.87)	5.73 (4.48)	5.43 (4.22)	5.47 (3.96)	5.45 (4.09)	5.59
일본사람 <sup>2</sup>	5.51 (4.53)	5.65 (4.56)	5.58 (4.55)	5.11 (4.00)	4.94 (3.44)	5.02 (3.72)	5.30

출처: 김혜숙·오승섭(1999)

주 1. 사회적 거리감 평정은 9점척도(1점 = 전혀 아니다 9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음. 숫자는 다섯 문항에 대한 평정평균으로, 숫자가 클수록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냄.

2. ( )의 숫자는 '결혼이라도 하겠다'와 '혼인관계로 나와 인척이 되는 것을 환영하겠다'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임.

<sup>1</sup>. 성별의 주효과  $F(1, 345)=15.29, p<.01$

<sup>2</sup>. 신분의 주효과  $F(1, 340)=7.69, p<.01$

면, 각 나라 사람에 대한 평균거리감은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나타나 남한사람에 대해 제일 가깝게 느끼고, 북한사람과 미국사람에 대한 거리감이 비슷하게 중간 정도로 가까이 느끼며, 그리고 일본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북한사람에 대해서는 호감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덜 친밀한 대인관계의사를 나타내었다. 즉, 여성들은 북한사람에 대해서 미국사람에 대해서보다 약간 더 먼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여자대학생들은 북한사람에 대해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해서보다도 더 소원한 인간관계의사를 나타내 보였다. 한편, 미국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여자대학생들이 친밀한 관계 의사를 보였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일반인보다 더 친밀한 관계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차원에서 북한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는 미국인 등의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멀며(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또한 그 친밀도의 정도는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중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북한사람에 대한 소원한 거리감은 결혼이나 친인척 관계와 같은 보다 가까운 관계에 대한 수용의사에 있어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0의 ( )에 각 나라 사람들과 '결혼이라도 하겠다'와 '혼인관계로 나와 친인척이 되는 것을 환영하겠다'의 두 문항에 대한 평정만을 따로 표시하였다. 이에서 보면 북한사람과 결혼을 하고자 하거나 북한사람과의 친인척관계를 환영하는 정도는 중간 이하이며 특히 여성들이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여자대학생들의 북한사람과의 낮은 결혼의사는 이수정(1999)에서도 나타나 남자대학생들은 68%가 북한인 여성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반면, 여자대학생들의 대다수(63%)가 북한남성들과 결혼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미디어 리서치가 1999년에 실시한 전국적 표본 조사(중앙일

보 2000년 1월 3일자)에 의하면 북한사람과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남한사람들은 15.6%에 그쳐, 일반 사람들의 경우 막상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사람들을 일상생활의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가깝게 수용할 의사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북한인에 대한 신념 및 호감도가 통일 및 북한(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대한 판단(즉, 북한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나 태도가 과연 북한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신념의 호의성과 상관이 높을 것인가 혹은 그보다는 북한인에 대한 호감이나 감정적인 측면이 보다 관련되는가를 몇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떠한 집단대상 혹은 집단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태도나 판단이 과연 그 대상집단에 대한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는가 혹은 신념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가, 또 어떠한 경우에 각각 그러한가를 검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준다(김혜숙, 1999; Eagly, Mladinic & Otto, 1994; Jussim 등, 1995).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지역태도와 같이 집단간 갈등과 상호 부정적 감정의 내력이 있는 집단들의 경우, 각 지역집단(즉, 호남 혹은 영남)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판단이 각 지역집단 사람들에 대한 신념(즉, 고정관념)보다는 감정(즉, 호오도)에 보다 영향받을 수 있다. 반면, 어떠한 호오 감정이나 갈등의 내력이 없는 경우(즉, 막 알게된 집단관계 등의 경우)에는 지역 대상에 대한 판단이 지역집단에 대한 감정보다는 인지에 보다 영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떠한 집단 대상에 대한 판단이 그 집단에 대한 감정에 보다 근거한다면, 그러한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편견적 판단과 태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이고, 만약 편견적 판단이 그 집단에 대한 인지나 신념에 보다 근거된다면, 그러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편견적 태도나 판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김혜숙·오승섭(1999)은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찬반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그러한 태도가 과연 북

표 11. 요인별 북한정책에 대한 태도

	대학생			일반인			전체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통일을 위한 준비 및 희생 감수 <sup>1</sup>	6.45	5.52	5.99	6.30	5.97	6.14	6.06
대북지원 <sup>2</sup>	6.49	5.62	6.06	6.23	5.76	6.00	6.03
남북교류 <sup>3</sup>	7.05	6.70	6.88	7.18	6.95	7.07	6.97
전체 <sup>4</sup>	6.64	5.90	6.27	6.52	6.17	6.35	6.31

출처: 김혜숙·오승섭(1999)

주. 대북정책에 대한 평정은 9점척도(1점 = 전적으로 반대한다 9점 = 전적으로 찬성한다)를 사용하였다.

<sup>1</sup> 성별의 주효과  $F(1, 348)=16.24, p<.05$

<sup>2</sup> 성별의 주효과  $F(1, 348)=18.13, p<.01$

<sup>3</sup> 성별의 주효과  $F(1, 343)=4.63, p<.05$

<sup>4</sup> 성별의 주효과  $F(1, 348)=18.13, p<.01$

한사람에 대한 호감도에 보다 영향을 받는가 혹은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호의성에 보다 영향받는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세 요인들이 나타났다. 요인1은 통일에 대한 대비와 그를 위한 희생감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통일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한이 조금 못살 수 있다”, “탈북자를 위한 정부지원은 필요하다”, “통일을 대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다”가 포함됨). 다음 요인2는 대북지원에 관한 태도를 지칭하고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북정책은 지금의 햇볕정책이 좋다”, “정부가 기업의 북한 진출을 허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가 포함됨), 요인3은 남북교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요인이었다(“대북통일은 흡수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평화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이산가족 찾기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남북한사람들의 민간교류는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들이 이에 포함됨).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표 11에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사람들은 남북교류에 대해서 가장 찬성하였으며, 통일준비와 그를 위

한 희생감수에 대한 태도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온건한 정도로 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과 북한정책에 대한 각 태도 평정에는 모두 성차이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덜 찬성하였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 감정, 사회적 거리감과 함께 다시 한 번 남한 여성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통일과 북한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기준 변인으로 하고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고정관념의 호의성(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 평가 점수와 그 특성들의 바람직성을 곱한 값의 평균)을 예언 변인으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듯이 각 정책태도 요인과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고정관념의 호의성이 둘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비슷하게, 김혜숙(준비중)은 북한사람에 대한 감정(즉, 긍정적 정서, 불안-불편 정서, 동정적 정서 및 혐오-불쾌 정서)과 고정관념의 호의성이 북한과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13에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북한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는 북한사람에 대한 긍정적 정서

표 12.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고정관념 호의성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태도 요인들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beta$ )

예언변인	기준변인			
	통일을 위한 준비	대북지원	남북교류	사회적 거리감
호감도	.37**	.42**	.24**	.44**
고정관념 호의성	.12 <sup>o</sup>	.10 <sup>o</sup>	.19**	.10 <sup>o</sup>
$R^2$	.15**	.19**	.10**	.21**

출처: 김혜숙·오승섭(1999)

주. \* $p < .05$ , \*\* $p < .01$

표 13. 북한사람에 대한 감정과 고정관념 호의성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태도 요인들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beta$ )

예언변인	기준변인			
	통일을 위한 준비	대북지원	남북교류	사회적 거리감
긍정적 정서	.44**	.36**	.34**	.33**
불안-불편 정서	-.11	-.10	.05	-.10
동정적 정서	.17**	.90	.15*	-.09
혐오-불쾌 정서	-.20**	-.20**	-.38**	-.35**
고정관념 호의성	-.02	-.01	.03	.16*
$R^2$	.38**	.26**	.35**	.39**

출처 : 김혜숙(준비중)

(즉, 좋다, 정이 간다, 그림다 등)였고 혐오-불쾌 정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동정적 정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와 남북교류 정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정관념의 호의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보다 호의적 태도와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사람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동정의 정서를 고양시키고, 불쾌나 혐오의 감정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전우영·조은경(2000)의 연구에서도 통일에 대한 거리감(즉, 통일을 가깝게 여기는 정도; “통일후 지금보다 세금이 무거워져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 “통일 후, 나는 자녀가 북한 출신과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겠다” 등)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beta = .39$ ; 예 “북한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는 자주 마음이 움직인다”, “북한에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그다지 측은해지지 않는다” 등)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북한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 $\beta = .21$ )이,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beta = .13$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북한 사람과 통일

에 대한 태도를 보다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감정이입 등의 감정의 변화 기법들과 고정관념의 수정 노력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6. 요약 및 논의

북한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의 중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폐쇄적이다’, ‘협동·단결력이 있다’, ‘순박하다(대학생 응답자)’, ‘주체성이 강하다(일반 응답자)’, 및 ‘배타적이다’이다. 또한 일반인 응답자는 이에 덧붙여 ‘공격적이다’, ‘침략적이다’를 북한인의 특성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88년 조사(차재호, 1992)와 비교하여 볼 때 일반인들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약간 긍정적으로 되었음을 지적해 주지만, 그들의 북한사람의 특성에 대한 지각은 여전히 대학생들보다 덜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사람들은 북한사람의 특성에 대해 북한나라와 북한사람의 여러 하위집단간을 구분하여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 북한과 북한지배층은 남성적인 특성(즉, 지배성, 주도성)들을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북한동포, 북한 여성, 북한 피지배층 및 북한 소녀는 보다 여성적인 특성(즉, 공동체지향성, 협동성)을 가

지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북한사람에 대해 아는 정도는 '88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해서보다도 덜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들의 지식이 남성들보다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북한사람에 대한 감정적 반응(즉, 호감도)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이 일반인보다 더 긍정적이었는데, 특히 호감도 반응에 있어서는 남자대학생이 가장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자대학생들은 북한사람에 대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미국사람보다 북한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반해, 일반인은 북한사람에 대해서보다 미국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감정평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호감도 순위는 차재호(1992)에서와 동일하다. 북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서는 동정정서가 가장 뚜렷하며, 그 다음 불안-불편 정서와 긍정적 정서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불쾌-혐오 정서는 거의 없는 정도였다. 특히 여대생들의 긍정적 정서가 남학생들에 비해 낮았다. 북한 사람들과 혼인, 인척관계, 세뎡기 등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가질 행동의사는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에 대해서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북한사람들에 대해 보다 소원한 행동의사를 나타내었다. 특히 여자대학생들은 미국사람과 일본사람에 대해 북한사람에 대해서보다 더욱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의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와 정책에 대한 태도는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의 호의성에 의해서보다는 호감도, 감정(긍정적 감정, 혐오-불쾌 정서 및 동정 정서)이나 감정이입의 정도에 의해서 더욱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 친숙도나 감정이 10년 전에 비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해 준다. 일반인들의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호의적으로 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북한사람보다 미국사람을 더 좋아했다. 북한사람과 일상생활의 여러 중요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는 미국사람에 대해서보다 높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아는 바도 이전에 비해 그다지 증가되지 못하고 다른 외국

인에 대한 친숙도보다 낮다고 지각되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다른 외국에 대해서보다 여전히 차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준비,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준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특히 일반인들은) 북한사람들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신념의 측면에 있어서 미국 등의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보다 덜 친밀하게 지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여성들이 특히 북한사람에 대해 낮은 호감도나 덜 긍정적 감정, 그리고 낮은 대인관계의사를 나타내고, 또한 정보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 준다.

물론 본 개관 연구에서 정리한 이와 같은 결과들은 1999년까지 조사된 자료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들이기 때문에, 2000년도 5월의 남한 대통령의 방북이나 그후에 일련으로 일어난 북한 문화에의 접촉이나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미친 영향들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남북 접촉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 사고 및 태도들이 상당히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에 대한 현재까지의 심리학적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중 통일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결과중의 하나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태도 혹은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가 북한사람에 대한 신념이나 고정관념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욱 영향받는다라는 점이다. 즉, 북한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지각하는 신념의 측면보다 그러한 정이나 동포의식 그리고 연민의 정과 같은 감정적 차원이 통일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적 감정의 형성을 위해서는 어릴적의 긍정적 감정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의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학습(즉, 고전적 조건형성, 강화나 모델링)과정을 강화시



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가 친구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담은 만화, 비디오 혹은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모방학습과 고전적 조건형성을 통한 긍정적 감정 형성을 이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집단 성원이 외집단 성원과 친구로 지내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은 또한 확장된 자기(extended-self)-즉, 외집단 성원을 자기의 개념안에 포함시킴-과정을 일으키게 하여 보다 호의적 태도가 발전되도록 한다(Wright, Aron, McLaughlin-Volpe, & Ropp, 1997). 그 외에 한집단 범주화(Tajfel, 1982)-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과 같은 동포로서 한집단 사람임을 점화시킴(유연재 · 김혜숙, 2000)- 혹은 감정이입(Batson, Polycarpou, Harmon-Jones, Imhoff, Michener, Bednar, Klein & Highberger, 1997) 등의 심리학적 기제를 사용하는 것도 북한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사람들과의 직접 접촉이 긍정적 감정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접촉은 동등한 지위에서의 친밀한 접촉이라는 전체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일전의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교류 혹은 평양교역단 등의 문화 교류 등 일련의 남북한 접촉 혹은 대리접촉의 경험이 상호 긍정적 감정 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접촉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특히 일반인이 가지는 “공격적이다”, “침략적이다” 등의 부정적 고정관념)의 수정, 그리고 지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개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한 사람들이 현재(즉, 1999년) 북한 사람에 대해 아는 바는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이고,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덜 알고 있으며, 또한 10년 전에 비해서도 나아진 바가 없다. 따라서 북한 사람의 구체적 일상 생활의 행동이나 가치관, 사고방식 등에 대해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북한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해진다. 북한사람들의 구체적 일상 문화와 의식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문화이해지(cultural assimilator) 방법이다(정진경, 1999; Triandis, 1994). 문화이해지는 남한 사

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의 가치, 의식 및 문화를 기술하는 일련의 사례들을 접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과 의식 양식에 대한 맞는 답을 여러 선택지중에서 고르도록 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 한편,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사람들에게 북한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에 보다 많이 접하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의식과 태도에 대한 규범적 정보(즉, “대학생들의 \_\_\_%가 통일 준비를 위한 세수 확대에 찬성한다” 등)를 보다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의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분야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우선, 이제까지 본 논문에서 개관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생 혹은 일반인에 대한 체계적 표집에 의한 조사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우리 나라 사람 전체에로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전국적 표본 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나라 사람 일반이 북한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감정 및 행동의사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또한 남녀 비교와 일반인과 대학생의 비교에 대한 전국 표집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보다 세분화된 하위집단(예: 연령 집단, 사회경제적 계층, 직업집단 등)의 북한인에 대한 의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의 연구의 또 다른 의미있는 연구 과제는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관련 가치나, 북한 사람의 특성에 관한 사회규범에 대한 지각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예를 들어, 집단주의 가치 혹은 평등주의적 가치 등)들과 부정적 태도에 관여되어 있는 가치(예를 들어, 개인주의적 가치, 형평원칙 혹은 자본주의 가치 등)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북한 사람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혹은 수정되어야 하는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또한, 응답자의 또래집단 혹은 내집단 사람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즉, 규범에 대한 지각)를 정확히 압으로써, 이러한 규범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보다 긍정적 태도 변화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아울러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의식과 태도가 북한사람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즉, 고용 등), 인상형성, 정보처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북한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으키는 자동과정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북한사람들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의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심리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앞서도 일부 제안하였듯이, 태도형성과 변화, 편견, 친밀한 관계 및 집단갈등, 그리고 사회인지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갈등해소와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응용하여 심리적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고안해 내고, 또한 이 방안들이 북한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태도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보는 연구들이 앞으로 보다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들과 그에 근거한 심리적 통합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의 시대에 남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러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4.
- 김혜숙 (준비중).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서.
- 김혜숙 ·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동아일보. 2000년 6월 3일.
- 유연재 · 김혜숙 (2000). '한집단'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이수정(1999).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68-79.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전우영 ·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전태국 (1999). 한국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움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발표논문집*, 79-93.
- 정진경 (1999). 남북한간 심리적 화합의 준비작업: 문화이해지. *한국심리학회 1999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222-224.
- 중앙일보 (2000년 1월 3일). 국민통일의식조사(미디어리서치).
- 차재호 (1992).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과제 보고서*.
- Bargh, . A. (1982). Attention and automaticity in the process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25-436.
- Batson, C. D., Pi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of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5-118.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agly, A. H., Mladinic, A., & Otto, S. (1994). Cognitive and affective bases of attitudes toward social group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13-137.
- Fiske, S. T. (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 perception.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4, pp. 155-194).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Fiske, S. T. (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357-411). New York: McGraw-Hill.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Jussim, L., Nelson, T. E.,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s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 Pettigrew, T. F., & Meertens, R. W.(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57-75.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8).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Turner, J. C., & Oakes, P. 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 (Eds.),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pp.233-275). Hillsdale, NJ: Erlbaum.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lpe, T.,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 and prejudice.,*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3-90.

1차 원고 접수 : 2000년 7월 29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9월 20일